독일 게임 시장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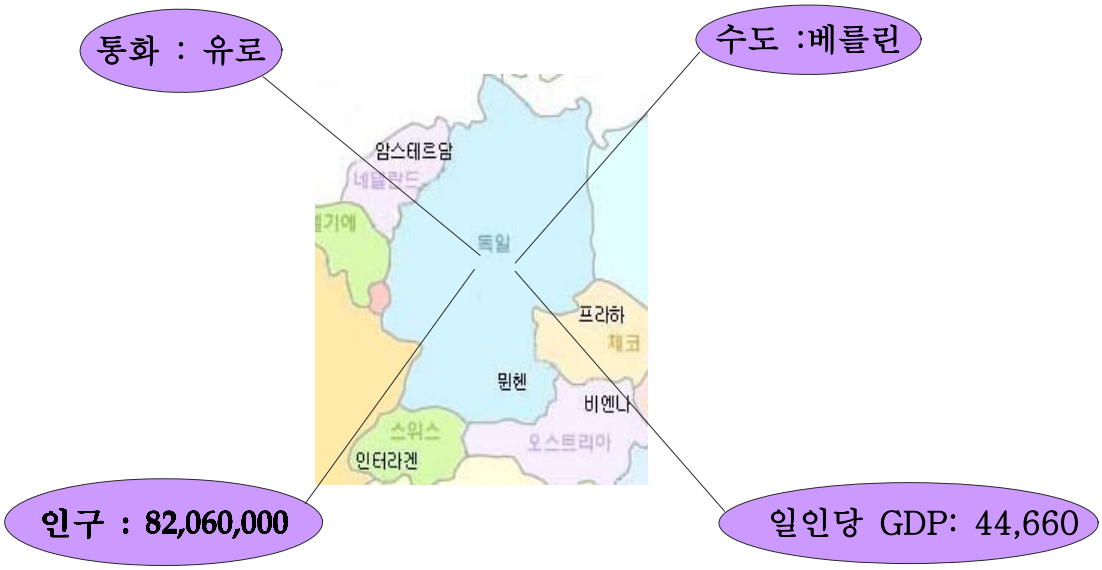
ㅇ 출처 : MCV (2009/08/24)

ㅇ 주요내용

- 독일 게임 시장은 2088년 십5억 유로 이상의 판매 수익을 벌여 들여 전년도 보다 14% 상승함
- 경제적 침체가 영향을 주긴 했지만 독일은 불황에서 벗어난 최초의 국가 중 하나로 게임 시장, 특히 소프트웨어 영역의 빠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음
- 독일 인터렉티브 엔터테인먼트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독일 게임 산업이 전례에 없는 성공 스토리를 이루고 있다고 밝힘
-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률의 수치로 인해 미디어 산업의 발전에 청신호를 키고 있음
- 작년 독일은 5천5백 만 개의 게임들이 판매되어 지금까지 최고의 수치를 기록함
- 이러한 게임 산업의 성황의 비결은 최신 콘솔 - 닌텐도 위, 마이크로소프트 XBox 360 그리고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2 - 과 핸드헬드-닌텐도 DSi와 소니 PSP 등의 플랫폼의 출현임
- 독일 회사 코크 대표자에 의하면 독일은 게임시장이 매우 긍정적이며 **특히 컴퓨터와 비디오 게임의 판매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임**
- 독일은 항상 유럽 게임 산업의 중심에 있고 특히 닌텐도와 일본 게임 개발회사 코나미의 유럽 지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일류 개발 재능인과 최대 규모의 비디오 게임 무역 쇼가 개최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
- 유럽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유리한 지리적 요소로 인해 독일은 많은 국제적 연락을 하는데 용이함
- 독일의 콘솔 게임 판매성장이 향상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PC 시장에 중점을 둠으로써 **다중접속온라인게임(MMOG)의 강자로 급부상 하고 있음**
- 다른 국가와 같이 독일 역시 다른 플랫폼들은 다루지 않고 있으며 예를 들어 DS 게임들의 수요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
- 현재 검색과 온라인 게임들이 독일의 핵심 플랫폼이며 독일회사 빅포인트(Bigpoint)와 게임포지(Gameforge)가 이 분야에 개척자로 떠오르고 있음
- 게임 시장의 성장이 증가할수록 비디오 게임의 폭력성 이슈가 대두되고 있음
- 카운터-스트라이크(Counter-Strike)와 파 크라이 2(Far Cry 2)와 같은 사격 게임은 독일에서 잘 알려진 인기 게임 이지만 동시에 독일사회의 청소년

범죄의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로 많은 언론사의 표적이 되고 있음

- 그러나 비디오 게임의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영화와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등급 표시로 성인 콘텐츠에 접근 할 수 없도록 많은 절차가 이루고 지고 있음



[주요 판매처]

- ✓ Saturn
- ✓ Media Market
- ✓ Amazon
- ✓ Galeria Kaufhof
- ✓ CameStop

[주요 유통업체]

- ✓ GroB Electronic
- ✓ Otto Group
- ✓ Playcom Software Vertriebs
- ✓ Vitrex Multimedia GrBhandel
- ✓ Koch